단국대학교 2014학년도 수시 2차 논술고사

인문계열(오전)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1) [가]에서 주제를 드러내는 단어를 찾은 뒤, 그 단어를 이용하여 이 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300자 내외) (15점)

2) [가]에 제시된 태도를 상징하는 단어 하나를 [나]에서 찾아 설명하고, [가]의 입장에서 [다]에 나타난 삶의 태도를 요약하시오. (300자 내외) (15점)

[가] 나는 시골에서 광주로 중학교 진학을 나오면서부터 한동안 그 흉터들이 큰 부끄러움거리가 되고 있었다. 도회지 아이들의 희고 깨끗하고 부드러운 손에 비해 일로 거칠어지고 흉터까지 낭자한 그 남루하고 못생긴 내 손꼴새라니.

그러나 그 후 세월이 흘러 직장 일을 다니는 청년기가 되었을 때 그 흉터들과 볼품없는 손꼴이 거꾸로 아름답고 떳떳한 사랑과 은근한 자랑거리로 변해 갔다. (중략)

그렇다. 그 흉터와 흉터 많은 손꼴은 내 어려웠던 어린 시절의 모습이요, 그것들을 힘들게 참고 이겨 낸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내 삶의 한 기록일 수 있었다. 그 나이 든 선배님의 경우처럼, 우리 누구나가 눈에 보이게든 안 보이게든 삶의 쓰라린 상처들을 겪어 가며 그 흉터들을 지니고 살아가게 마련이요, 어떤 뜻에선 그 상처의 흔적이야말로 우리 삶의 단단한 마디요 숨은 값이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오직 나만의 자랑이나 내세움거리로 삼을 수는 없으리라. 그것은 오히려 우리 누구나가 자신의 삶을 늘 겸손하게 되돌아보고, 참삶의 뜻과 값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비춰 보는 거울로 삼음이 더 뜻있는 일일 것이다.

출처: 문영진 외(2011), 『국어 (상)』, 창비, 23-24쪽.

[나] S 회관 화랑은 3층이었다. 숨차게 계단을 오르자마자 화랑 입구였고 나는 미처 화랑을 들어서기도 전에 입구를 통해 한 그루의 커다란 나목(裸木)을 보았다. 나무 좌우에 걸린 그림들을 제쳐 놓고 빨려 들 듯이 곧장 나무 앞으로 다가갔다.

나무 옆을 두 여인이, 아이를 업은 한 여인은 서성대고 짐을 인 여인은 총총히 지나가고 있었다.

내가 지난날, 어두운 단칸방에서 본 한발 속의 고목(枯木), 그러나 지금의 나에겐 웬일인지 그게 고목이 아니라 나목이었다. 그것은 비슷하면서도 아주 달랐다. 김장철 소스리 바람에 떠는 나목, 이제 막 마지막 낙엽을 끝낸 김장철 나목이기에 봄은 아직 멀건만 그의 수심(樹心)엔 봄에의 향기가 애닯도록 절실하다.

출처: 권영민 외(2012), 『문학 I 』, 지학사, 28쪽.

[다] 첫 책에 기록된 내 약력을 읽은 시 쓰는 선배가 영등포 여고 나왔데, 모르고 있었잖아. 나도 그 학교 나왔는데, 후배 만났네, 하며 반가워했을 때 나는 그가 내게 몇 반이었느냐, 국어는 누가 가르쳤느냐, 물을까 봐 전전긍긍했다. 그러다가 기회가 생기자 얼른 그 자리를 외면했다. 내 여고 시절은, 나 자신이 나 스스로를 무슨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 취급하며 나를, 천성이 낙천적이었던 나를, 내성적으로 만들어 왔다. 여간 친하지 않으면 그 시절 얘기를 함구해 버리면서. (중략) 나는 정직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껏 시치미를 떼었으니까. 내 젊음에 대해, 나라는 존재에 대해, 자신은 없고 생생한 아픔만이 승해서 범한 건너뜀. 이건 소설이다, 하면서도 나는 죽을 것같이 가슴이 아팠다. 그 가슴 아픔을 숨기려고 나는 서둘러 십 년 후 이러이러했다고, 끝을 내놓았다. 정면으로 쳐다볼 자신이 없어 얼른 뚜껑을 닫아 버리며 나는 느꼈다. 내게는 그때가 지나간 시간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낙타의 혹처럼 나는 내 등에 그 시간들을 짊어지고 있음을, 오래도록, 어쩌면 나, 여기 머무는 동안 내내 그 시간들은 나의 현재일 것임을.

출처: 문영진 외(2011), 『국어 (하)』, 창비 29쪽.

[문제 2] 제시문 [가]와 [나]의 논지를 [다]와 관련하여 각각 설명하고, [다]에 나타난 찬반론 중 자신의 관점과 대립되는 견해를 비판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가]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할 것인가는 경제학뿐만 아니라 정치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애덤 스미스는 희소한 자원을 가장 잘 분배하는 기구가 바로 시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이 분업을 통해 노동 생산성을 극대화해서 생산물을 여러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분배하는 질서의 중심이라고 했다.

모든 사람들이 시장에서 화폐를 중심으로 한 교환 과정에 참여한다면, 생산된 물품을 아무런 불균형 없이 자연스럽게 분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략) 물건을 필요에 따라 사들이고 파는 과정에서 수요자의 필요 욕구와 공급자의 판매 욕구가 시장에서 서로 균형을 이룬다는 것인데, 애덤 스미스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불렀다.

애덤 스미스는 이런 시장의 과정에 국가의 관세 부과와 같은 외부의 힘이 개입하면 안 된다고 믿었다. 경제적 자유가 노동의 분업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생산 기술의 혁신을 일으키는 개인적 동기와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런 동기와 기회들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장애가 없어야 한다. 국가가 시장에 의도적으로 관여하는 일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장애가 될 뿐이다. 스미스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서로 경쟁하면, 가장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도 자연히 해소된다고 보았다.

출처: 변순용 외(2010), 『고등학교 도덕』, 천재교육, 115쪽.

[나] "근자에 흥미 위주의 글이나 기궤한 문체를 씀으로써 시학(時學), 시문(時文)이라는 꾸짖음을 당하니, 이것은 기상과 격조가 사람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교정할 수 없다는 것인가? 아니면 장려하는 길이 마땅함을 읽어 차차로 습속(習俗)으로 되어 그러한 것인가? (중략) 근래 문풍(文風)이 점차 변하여 이른바 붓을 잡고 있는 선비가 시서육서(詩書六書)의 문장에 근본을 두지 않고 머리를 파묻은 채 온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도리어 패가소품(稗家小品)의 글에 불과하다. 이것이 발휘되어 작품을 지으면 종이에서 붓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기운이 벌써 쓸쓸해진다. 이는 마치 혼수상태에 빠진 자가 때때로 헛소리와 잠꼬대를 하는 것과 같도다. 스스로는 지극히 공교롭고 오묘하게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남의 그림을 베낀 그림도 이루지 못하고 거의 술래잡기와 같은 글이 되었다. 이러한 말을 세간에서 쓰자니 시골 훈장의 진부한 말보다 못하고, 조정에서 쓰자니 크고 작은 사명에 쓸 수가 없다." 정조는 박지원의 『열하일기』가 패가소품이라고 하여 올바른 문체의 글을 지어 올리라고 명하였다.

출처: 최지현 외(2011), 『고등학교 문학 Ⅰ』, 지학사, 301쪽.

[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12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 등이 낸 헌법 소원 사건에서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공익'이라는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수의 재판관은 '허위 사실' 역시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해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검찰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토론 게시판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정부의 외환 정책을 비판하는 허위의 글을 작성해 유포했다며 박 씨를 구속 기소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는 찬반론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출처: 『경향신문』, 2012.8.24.

[문제 3] 제시문 [가] ~ [다]를 근거로, [라]의 표에 제시된 상황을 비판하고, [마]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600자 내외) (40점)

[가] 인류학자 마거릿 리드는 1931년~1933년 뉴기니의 세 부족의 성과 기질에 대한 현장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아라페시 부족 사람들은 남녀 모두 협동심이 강하고 비공격적이며 타인의 욕구에 재빨리 반응하는 등 '여성적'인 인성을 보였다. 이에 비해 문두구머 부족 사람들은 남녀 모두 무자비하고 공격적이며 독립적인 '남성적'인 인성을 보였다. 또한 챔블리 부족에서는 여자가 지배적이고 객관적이며 통솔권을 가지는 반면 남자는 책임감이 약하고 정서적으로 의존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출처: 박서현 외, 『EBS 탐스런 사회·문화』, 177쪽.

[나]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3 세계 성 격차 보고서(Gender Gap Index) '에 따르면 한국의 성 평등 순위가 136개국 중 111위에 그쳤다는 발표에 대해 여러 언론과 대중에서 우려와 질타가 쏟아졌다는 기사를 접했다. 경제발전이 눈부시게 이루어지면서 최근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이 남성과 동등하게 이루어지고 여권도 많이 상승되었지만 아직 대한민국의 현실은 여성 인권 발전 시대에서 양성 평등 시대로 가는 과도기적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외부의 지표를 통해 보는 우리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다.

얼마 전 TV에서 남성들이 데이트 비용과 결혼 비용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불합리한 역차별에 대해 볼멘소리로 성토하는 토론을 본 적이 있다. 특별히 우리나라 여성들은 여러 방면에서 남성과 동등한 여권을 부르짖으면서 유독 경제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남성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릇된 편견이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이중적이며 부당한 역차별이라는 것이 토론의 핵심이었다. 물론 이러한 고정관념은 우리 문화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오래된 유교적 가부장 제도와 왜곡된 우리의 교육과 사회적 결혼 관습, 그리고 피할 수 없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들만이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국방의 의무에서 오는 제도적·문화적 현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매일경제신문』, 2013.11.18.

[다] 2012년 현재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은 74.3%로 남학생(68.6%)보다 높았다. 2009년 이후부터 여학생의 진학률이 남학생을 앞지르기 시작하였는데, 남녀 학생 간의 대학진학률 격차는 2011년 4.8%p, 2012년 5.7%p로 더 크게 벌어졌으며, 전문대학과 4년제 이상 대학의 경우 모두 여학생의 진학률이 높았다.

또한 2012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9%로 2011년(49.7%)에 비해 0.2%p 상승하였다. 그러나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73.3%)과는 여전히 23.4%p의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후반에 높은 참가율을 기록하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0대 출산과 육아시기에 감소하였다가, 40대 초반부터 다시 늘어나는 M자 패턴을 보였다.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교육통계연보」.

[라] **2012년 우리나라 성불평등지수 현황**

□ **148개국 중 27위(점수 0.153)**

○ **2011년 대비 16단계 하락 (2011년 146개국 중 11위)**

- 모성사망률 16, 청소년 출산율 5.8, 여성의원 비율 15.7%, 25세 이상 인구 중 중등 이상 교육 받은 여성의 인구 비율 79.4%(남성 91.7%),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49.2%(남성 71.4%)

<우리나라 성불평등지수(GII) 현황>

연도	순위/대상	점수	생식 건강		여성 권한			노동 참여	
			모성 사망률	청소년 출산율	여성의원 비율(%)	중등 이상 교육 받은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12	27/148	0.153	16	5.8	15.7	79.4	91.7	49.2	71.4
2011	11/146	0.111	18	2.3	14.7	79.4	91.7	50.1	72.0

* 점수가 0이면 완전 평등(no inequality), 1이면 완전 불평등

◈ 모성사망률(Maternal mortality ratio): 여성의 임신, 분만 및 관련 합병증으로 인하여 출생 10만 명당 사망하는 여성의 수
◈ 청소년 출산율(Adolescent fertility rate): 15~19세 여성 인구 1,000명 당 출산 수
◈ 중등 이상 교육 받은 인구 비율(Population with at least secondary education): 2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중등 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 비율

출처: 여성가족부(2013), 「UNDP 2012년 성불평등지수(GII) 현황」.

[마] <양성평등을 위한 역차별>

[찬성측 1] 지금까지 부당한 성차별로 손해를 입었던 여성들에게 사회는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거의 차별이 현재의 차별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런데요. 남성들이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하게 되더라도 이는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차별에 대한 사회 전체의 책임을 분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반대측 1] 취지는 좋을지 모르지만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로서의 역차별은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고, 이는 결국 보상의 악순환을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들이 과거에 차별을 받은 점은 가급적 보상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역으로 차별을 만드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찬성측 2] 지위, 이익, 기회 등을 배분할 때 최적격의 실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선택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이익을 가져다주어야 한다는 실적주의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교육이나 고용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실적주의는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실적이나 능력을 판단하는 잣대 역시 남성과 같은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만든 것들입니다. 이러한 잣대로 인해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경쟁의 장에 참여조차 못하게 됩니다.

[반대측 2] 그렇지만 개인의 능력이 아닌 성별을 기준으로 최적격자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자격이 부족한 자를 특정 지위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만들 수 있고, 결국 사회는 최적의 효율을 보여주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될 겁니다. 물론 애초부터 합리적인 기회의 평등을 부여하지 못한 잘못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상한다는 이유로 또 다른 사회적 손실을 고스란히 감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출처: 박호영 외(2013), 『고등학교 국어(하)』, (주)유웨이중앙교육, 284쪽.

문제 1

□ 출제 의도

○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삶의 태도를 요약·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다.

○ 제시문 [가]에는 어렸을 때 생긴 '흉터'에 대해 '삶을 겸손하게 되돌아보고, 참삶의 값이 무엇인가'를 비추어 보는 '거울'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잘 드러난다. 이 글에서는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흉터', '상처' 등의 단어들을 사용했다.

○ 제시문 [나]에서는 지난날 '고목(枯木)'이라고 생각했던 그림을 '나목(裸木)'으로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고목은 희망이 없는 죽은 나무이지만, 나목은 봄의 향기를 기다리는 나무이다. [나]에서 주제를 드러내는 핵심적인 상징어는 '나목'이다. 화자가 고목을 나목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두운 단칸방'의 삶에서 '봄의 향기를 절실히 갈망하는 삶'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제시문 [다]에서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당당히 맞서지 못한 화자가 자신을 정면으로 바라봄으로써 아픔을 극복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스스로 '정직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껏 시치미를 떼었음'을 자각하는 과정에서 아픔을 딛고 성숙해 가는 화자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다.

□ 자료 출처

○ [가]: 이청준, 「아름다운 흉터」, 문영진 외(2011), 『국어 (상)』, 창비, 23-24쪽.
○ [나]: 박완서, 「나목」, 권영민 외(2012), 『문학 I 』, 지학사, 28쪽.
○ [다]: 신경숙, 「외딴 방」, 문영진 외(2011), 『국어 (하)』, 창비 29쪽.

□ 평가 기준

1)번 문항

○ 주제를 드러내는 단어를 찾는 능력을 평가함.
. '흉터' 또는 '상처' (가장 적절).
. '흉터' 또는 '상처'를 언급하지 않고 '거울', '되돌아보고', '참삶' 등으로 답할 경우(부분 적절).
. 그 외의 다른 단어들 혹은 제시문 밖의 단어로 답할 경우(적절하지 않음).

◈ 채점 기준

. 가장 적절: 10점.
. 부분 적절: 6점.
. 적절하지 않음: 0 ~ 3점.

○ 삶의 태도를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
. 자신의 흉터나 삶의 쓰라린 상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참삶의 뜻과 값이 무엇인지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로 삼는 태도.

◈ 채점 기준

. 일차적으로 제시문에 근거한 답안이어야 하며, 위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여 설명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0 ~ 5점을 부여함.

2번) 문항

○ [가]에 나타난 삶의 태도를 [나]와 연계하여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함.

. 자신의 흉터나 삶의 쓰라린 상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참삶의 뜻과 값이 무엇인지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로 삼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고목'은 '나목'으로 인식될 수 있다.

○ 제시문 [가]와 [나]의 삶의 태도를 바탕으로, [다]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를 요약하고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

. [가]의 입장에서 [나]는 '고목'을 '나목'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 [다]에서 '아픔을 숨기려고', '정면으로 쳐다볼 자신이 없어' 등의 표현을 통해 '성숙'에 이르는 화자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 채점 기준

. [나]에서 '나목'을 찾아내면 5점, 그렇지 않으면 0점을 부여함.

. [가]의 입장에서 [나]와 [다]의 삶의 태도를 제대로 요약하고 설명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0 ~ 10점을 부여함.

□ 예시 답안

○ 1)번 문항

[가]에서 주제를 드러내는 단어로 '흉터' 또는 '상처'를 찾을 수 있다. 흉터는 지나온 삶의 볼품없는 자취를 나타낸다. 그러나 화자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 흉터를 자랑처럼 여기기도 하였다. 사람들은 누구나 거칠고 힘든 상처가 있을 수 있다. 때로 그 흉터나 상처가 미화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과거의 어두운 면이므로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상처이든 그렇지 않은 상처이든 그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울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자신을 겸손하게 되돌아보고 삶의 참뜻을 되새겨 보는 일이다.

○ 2)번 문항

[나]에서 흉터를 거울로 삼음으로써 대상을 달리 보게 된 대상은 '나목'이다. 화자는 어두운 단칸방에서 단지 한발 속의 '고목'으로 인식했던 것이 '봄의 향기'를 절실히 갈망하는 '나목'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삶을 성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다]에서 화자는 자신이 부끄러움과 아픔을 숨기며 살아왔음을 깨닫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 정면으로 쳐다봄으로써 아픔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과거의 아픔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진정한 성숙에 이를 수 있다.

문제 2

□ 출제 의도

○ **[가], [나]** 글은 서양 및 우리나라의 고전 작품으로, 이 문제에서는 두 글이 각각 어떠한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가, 나아가 각 글의 사상적 기초가 현대 사회에서, 특히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어떤 입장(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가, 국가의 규제를 인정하는가)과 논리적으로 연결되는가를 평가 목표로 한다. 특히, 2007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10학년 읽기 영역의 성취기준 "(1) 사회적 규약을 담은 글의 특성을 알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파악한다." 와 "(2) 법률적 쟁점을 다룬 글을 읽고 사건의 개요와 판단의 취지를 파악한다."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이를 바탕으로, 현실 사례(지식 탐구)에 적용하는 사고 역량과 표현 능력을 평가한다.

□ 자료 출처

○ [가]: 김만권, 「그림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 변순용 외(2011), 『고등학교 도덕』, 천재교육, 115쪽.
○ [나]: 정조, 「홍재전서」, 최지현 외(2011), 『고등학교 문학 I 』, 지학사, 301쪽.
○ [다]: 『경향신문』 2012. 8. 24. 「헌재, '미네르바'· SNS 등 '표현의 자유'에 잇단 전향적 결정」.

□ 평가 기준

○ [가]의 논지를 [다]와 관련하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가] 지문은 자유방임주의의 기초를 닦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설명한 글로,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국가가 규제를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율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가 드러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역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됨.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찬성함.

◈ 채점 기준

· [가] 지문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의 자율 혹은 자유방임을 옹호하는 글임을 파악하고(5점),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역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맡겨두면 허위의 사실 등의 글은 저절로 도태될 것이라는 점을 서술한 것(5점).

· [가] 지문의 요지만 설명하거나, [가] 지문에 따라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인정하여야 한다(혹은 국가의 규제를 철폐하여야 한다)는 어느 한 점만 논한 경우에는 각 5점 부여.

· 기타 위 평가 기준과 채점 기준의 취지에 부합하는 답안인 경우, 부분 점수 가능.

○ [나]의 논지를 [다]와 관련하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나] 지문은 정조의 『홍재전서』에 기록된 문체반정에 관한 글임. 문체반정은 당시 박지원의 『열하일기』와 같은 새로운 사조의 글이 등장하자, 정조가 이를 사문(詐文)으로 규정하고 당송 시대의

글 형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권한 것으로, 이 내용에 근거하여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봄.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대함.

◈ 채점 기준

. [나] 지문이 사상, 표현, 문체 등에 있어서 국가가 개입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하여야 함을 옹호하는 글임을 파악하고(5점),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역시 민간 부분에 맡기게 되면 근거 없는 주장만이 난무하게 될 것이므로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서술한 것(5점).

· [나] 지문의 요지만 설명하거나 [나] 지문에 따라 국가의 개입이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만 논한 경우에는 각 5점 부여.

· 기타 위 평가 기준과 채점 기준의 취지에 부합하는 답안인 경우, 부분 점수 가능

○ [가], [나]의 논지 중 어느 하나의 관점(견해)을 채택하여 반대되는 견해를 비판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따라서 수험생이 어느 견해를 채택하는가는 자유인데, 그 채택한 견해의 반대 견해(입장)의 단점을 적절히 비판할 수 있어야 함.

◈ 채점 기준

[가]의 입장을 취하는 경우

· 1) 사상이나 표현은 극히 개인적인 영역으로서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 2) 인터넷은 가장 열린 공간, 혹은 표현촉진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표현은 더욱 자유로워야 한다. 3) 공익이라는 목적으로 국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명료히 밝힘. (10점)

[나]의 입장을 취하는 경우

· 1)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무한정 인정하게 되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법 공백이 생기게 된다, 2) 인터넷은 온갖 허위 사실과 엉터리 폭로 등으로 유언비어가 난무하게 된다, 3) 인터넷은 접근의 용이성, 전파의 신속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그 피해 또한 막대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글 (10점).

□ 예시 답안 (1): [가]의 입장을 취하는 경우

[가]는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국가가 규제를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율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가 드러나 있다. 자유방임론은 사상이나 표현이 시장에서 설득력을 얻거나 도태되도록 해야지 국가가 특정 사상이나 표현에 간섭할 수 없다는 '사상의 자유시장론'으로 연결된다. 인터넷에서의 허위 표현 역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율에 맡기면 저절로 정화될 것이다.

[나]는 국가가 제시한 문체나 사상과 반대되는 글에 대하여는 국가가 이를 규제 혹은 금지할 수 있다는 사상이다. 인터넷에 명예를 훼손하는 글 등이 올라오면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고,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주장들이 인터넷에 난무하게 된다. 올바른 사상 형성을 위해서는 국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사상이라는 것은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극히 개인적인 영역으로서 표현 매체 중에서도 가장 열린 공간이라고 하는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신문, 방송 등 다른 표현 매체에서보다 더 보호받아야 한다. 이를 규제하는 것은 공익이라는 목적으로 현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억제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 예시 답안 (2): [나]의 입장을 취하는 경우

[가]는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국가가 규제를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율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가 드러나 있다. 자유방임론은 사상이나 표현이 시장에서 설득력을 얻거나 도태되도록 해야지 국가가 특정 사상이나 표현에 간섭할 수 없다는 '사상의 자유시장론'으로 연결된다. 인터넷에서의 허위 표현 역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율에 맡기면 저절로 정화될 것이다.

[나]는 국가가 제시한 문체나 사상과 반대되는 글에 대하여는 국가가 이를 규제 혹은 금지할 수 있다는 사상이다. 인터넷에 명예를 훼손하는 글 등이 올라오면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고,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주장들이 인터넷에 난무하게 된다. 올바른 사상 형성을 위해서는 국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무한정 인정하게 되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법 공백이 생기게 된다. 또 인터넷은 온갖 허위 사실과 엉터리 폭로 등으로 유언비어가 난무하게 되고, 접근의 용이성, 전파의 신속성으로 인하여 그 피해 또한 막대할 것이다.

문제 3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2009 국어과 개정 교육과정의 "토론을 듣고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논제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2009 사회과 교육과정(사회·문화)의 "① 사회 불평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 불평등 현상을 기능론과 갈등론의 관점으로 비교·분석한다. ④ 성 불평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2009 도덕과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문제 사태나 도덕적 쟁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라는 성취 기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 [가]는 김윤태의 『사회학의 발견』에서 발췌한 것으로, '여성적'·'남성적'이라고 하는 성향이나 기질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성'과는 무관한 것임을 보여주는 인류학자 마거릿 리드의 실증적 연구 결과이다.

○ [나]는 매일경제신문에 실린 우영미의 칼럼 「평등의 이중 잣대」 가운데 일부로, '여성 인권 발전 시대'에서 '양성 평등 시대'로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진단한 글이다.

○ [다]는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교육통계연보」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연보」에서 발췌한 것으로, 여학생의 대학진학률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 [라]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UNDP 2012년 성불평등지수(GII) 현황」에서 발췌한 것으로, '생식 건강', '여성 권한', '노동 참여'를 지표로 한 우리나라의 성불평등지수가 2011년도 조사대상 146개국 가운데 11위에서 2012년도에는 조사대상 148개국 가운데 27위로 하락하였음을 보여준다.

○ [마]는 고등학교 국어(하) 교과서(유웨이중앙교육)에 수록된 6단원 <쟁점과 토론> "2. 토론과 문제 해결" '(1) 양성평등을 위한 역차별'의 듣기 대본이다. '양성평등'의 적극적 해결을 위하여 역차별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게 하는 자료이다.

○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불평등 현상 가운데 하나인 '성 불평등'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및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 해석과 그에 기초한 논리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 자료 출처

○ [가] 김윤태(2006), 『사회학의 발견』(새로운사람들), 박서현 외, 『EBS 탐스런 사회·문화』에서 재인용.

○ [나] 우영미, 「평등의 이중 잣대」, 매일경제신문, 2013.11.18.

○ [다]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교육통계연보」.

○ [라] 여성가족부(2013), 「UNDP 2012년 성불평등지수(GII) 현황」.

○ [마] 박호영 외(2013), 『고등학교 국어(하)』, (주)유웨이중앙교육, 284쪽.

□ 평가 기준

○ [가] ~ [다]에서 제시한 연구 보고와 일반인의 인식, 통계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지를 평가함. [가] ~ [다]에서 파악한 내용을, [라]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성불평등지수 현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데 적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라]에서 제시한 자료에 대한 비판적 인식 위에서 [마]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데 성공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가] : '성'과 '기질'은 서로 무관함. '성'에 따라 '기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님.

[나] : "2013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조사대상 136개국 가운데 111위를 기록한 한국의 현실. 여성 인권 발전 시대에서 양성 평등 시대로 가는 과도기 상태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 남성과 여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과 이를 형성한 제도적·문화적 배경.

[다] : 남학생의 대학진학률을 추월한 여학생의 대학진학률.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73.3%)과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49.9%).

[라] : 불평등지수의 상대적 수준을 보여주는 국가별 순위가 2011년에 비해 2012년에는 16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불평등지수도 0.111점에서 0.153점으로 악화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성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심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임.

[마] : 우리 사회의 성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양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동안 상대적 우대를 받아온 남성들이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각각의 주장을 제시한 것임.

◈ 채점 기준

. [가] ~ [다]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였으면 10점.
. [가] ~ [다]의 핵심 내용이 [라]에서 제시한 자료에 대한 비판적 이해에 적절히 활용되었으면 10점.
. [라]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마]의 문제에 대한 논술자의 주장과 긴밀하게 연계되었으면 10점.
. 한 편의 완성된 글로서 주장의 명확성과 논지 전개 과정의 타당성을 획득하고 있으면 10점.
. 해당 구간 내에서 평가자의 정성 평가를 반영함.

□ 예시 답안

사람은 누구나 인종이나 성,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성과 기질이 무관하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성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불식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의 문화적 관습이나 고정관념은 성 불평등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 원인의 하나로 작용해 왔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3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 평등 순위는 136개국 가운데 111위에 그쳤으며, UNDP의 '2012년 성불평등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2011년에 비해 16단계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지표는 최근 여권의 신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개선은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상대적 우대를 받아왔던 남성들이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을 주장한다. 여성이나 남성이 서로 자기 입장만을 고집하고 양보하지 않으면 성 불평등으로 인한 문제는 갈수록 상처의 골만 깊어갈 것이다. 그보다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배려를 통해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고양하려는 태도가 바람직한데, 상대에 대한 이해와 존중, 배려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누리고 있는 쪽에서 손을 내미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 반대 주장을 담은 진술도 가능함.